

루마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2

루마니아

(Romania)

I. 일반개황

면적	238.4천 km ²	G D P	1,684억 달러(2007년)
인구	21.6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7,798 달러(2007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Lei
대외정책	유럽-대서양지역으로 통합을 통한 국제사회 입지 확립	환율(달러당)	2.44(2007년 평균)

- 루마니아는 2007년기준 1인당 GNI가 6,150달러*로 세계은행 분류 상위중소득국(UMIC)에 속하며, 인구규모로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터키, 폴란드에 이어 3위 국가임.
- 주변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경제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이 뒤쳐져 있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운용능력이 IMF 등 국제기구로 비판받고 있으나, 2004년 NATO 가입 및 2007년 EU 가입 성공을 통해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EBRD 체제전환 지표(민영화, 가격자유화, 무역시스템, 금융자유화 등) 기준에 의거, OECD에서는 2008년부터 시장경제 체제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 2012년 ERM-II 도입 및 2014년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경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EU로부터 부패척결과 사법개혁 노력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Atlas Method(3년 평균환율 사용) 기준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f
경제성장률	8.5	4.2	7.9	6.0	6.6
재정수지 / GDP	-1.0	-0.8	-1.5	-2.3	-3.0
소비자물가상승률	11.9	9.0	6.6	4.8	7.7

자료: IMF, EIU.

□ 건설업 호황 및 내수증가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 2005년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여 4.2%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 농작물 작황이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량도 전년대비 7.1%나 증가한데 힘입어 실질 GDP 성장률이 7.9%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2007년에는 다시 가뭄이 들어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고, 산업 생산증가율도 둔화되어 실질 GDP 성장률이 6.0%로 하락하였음.
- 또한, 2006~07년 경제성장은 실질임금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수요 증대 및 주택·쇼핑몰·도로·발전소 등 다양한 건설수요 증가로 인한 건설경기 호황에 주로 기인함.

* 실질임금 상승률: 11.6%(2006) → 16.9%(2007)

* 건설업 총부가가치 증가율: 19.4%(2006) → 33.6%(2007)

- 2008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2%를 시현하였는데, 5월 지방선거 관련 정부지출 증가 및 은행 차입금을 기반으로 한 민간소비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 성장의 내용에 있어 우려할 만함.

- 한편, 국내 거시경제 지표 악화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에도 총선관련 정부지출 증가가 예상되어 2008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6.6%로 예상됨.

□ 2007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 고조

- 1997년 경제자유화 이후 150%를 상회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자본주의 경제의 정착과 함께 점차 안정되어 2005년에는 10% 이내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고, 2007년 상반기까지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 2007년 하반기 이후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세계적인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공공요금 및 담배·주류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 중앙은행의 6% 목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7% 수준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악화 추세 지속

- EU 가입을 위한 인프라·교육·보건 등 정부지출의 확대로 200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2007년 1월 EU 가입 이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및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단행 등으로 재정수지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IMF와 EU의 강력한 비판에 따라, 정부는 2008년도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대비 -2.75%에서 -2.30%로 조정하였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전망, 선거를 앞둔 복지관련 정부지출 증가 예상,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예정 등을 감안할 때 -3%이상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가 예상됨.

* IMF는 루마니아의 최근 경제발전을 평가한 보고서('08.5)에서 물가인상 압력 및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 GDP 대비 -1.75%의 재정수지 적자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2. 경제 구조 · 정책

□ 제조업 기반 취약

- 1990년대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경제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 나간데 반해 루마니아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속 및 제조업 기술력 육성 실패 등 구조조정이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됨.
 - * 산업별 GDP 구성(2007): 서비스업 55.8%, 제조업 26.4%, 건설업 10.3%, 농림업 7.5%
 - * 최근 IMF는 루마니아의 경제구조 개혁이 정책 실패로 인해 여타 신규 EU 가입국에 비해 뒤쳐져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EU내 실질적인 통합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최근 외국인투자(FDI) 유입을 통한 산업 현대화가 자동차·제약·도소매 등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이거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대외경제 부문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로의 신규 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소비재 수입 급증

- 2008년 6월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산업생산력 제고를 위한 자본재 성격의 기계·장비 수입규모는 2000~02년중 GDP대비 4%에서 2006~07년중 GDP대비 5%로 소폭 증가하였고, 동 기간 동안 에너지·원자재·중간재 수입은 GDP대비 7~10% 규모에서 변동을 보였음. 반면, 소비재(자동차 제외)는 2002년 순수출 규모가 GDP대비 6%이었으나 수입이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균형 수준을 이루게 되었고, 자동차의 경우 2003년 이후 수입규모가 4배나 증가하였음.

□ 에너지 자급률 소폭 상승 예상

- 천연가스·원유·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기 순수출국이나, 에너지 수요의 약 3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006년 12월 에너지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기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어 에너지 자급률이 다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개입찰이 2007년 8월 시작되어 현재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 중임. 이로 인해, 현재 17% 수준인 원전의 에너지 공급비중이 2012년 25%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민영화 부진과 함께 2007년 외국인투자(FDI) 유입 위축

- 2004년 이후 각종 민영화 정책에 힘입어 FDI 유입액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경상수지 적자의 89%를 보전 할 정도로 증가 하였으나, 2007년 민영화 사업건수 감소와 함께 FDI 유입액도 경상수지 적자액의 43% 규모로 감소하였음.

* 연중 FDI 유입: 65억달러('04) → 65억달러('05) → 114억달러('06) → 99억달러('07)

- 2008년에는 Electrica Montenia Sud의 이탈리아 Enel사앞 민영화 수입 등으로 인해 4월말 현재 32억유로 규모(전년 동기 16억 유로)의 FDI 유입을 기록하고 있어 전년대비 투자유입 증가가 기대됨.

□ 경상수지 악화 지속에 투자자 신뢰 악화

- 경상수지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 및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정책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정책 대응에 실패하였음. 이에, 경상수지 적자폭은 2006년 GDP대비 10%를 초과하였고, 2007년에는 GDP대비 14%에 달하여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2007년 하반기 이후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증시 하락 등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됨.

□ 국제기구 비판에도 불구하고, 확대 재정정책 지속 전망

-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IMF, EU 및 World Bank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중 4번에 걸쳐 예산을 수정하고, 연말 재정지출 관리에 소홀하여 적자폭을 급속히 확대 시킨 점 등 중장기적 재정전략 없이 초단기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2009년 연금지급 증액(안)이 검토 중에 있는 등 확대 재정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 2007년 10월 이후 정책금리 총 300bp 인상

- 2012년 ERM-II 도입 및 2014년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2005년 8월, 통화정책 지표를 환율에서 물가상승률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지속된 확대 재정정책 및 임금정책, 소비자 신용 팽창이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고 있음.
- 2007년 10월 긴축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한 이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300bp의 정책 금리를 인상하였는데 이는 물가 안정과 더불어 대외 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신용팽창을 억제 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음.
- 민간부문 외화 차입이 증가하고 있어 통화 불안요인으로 잠재하나,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IMF, '08.5).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f
경 상 수 지	-3,869	-8,621	-12,785	-23,136	-30,117
경 상 수 지 / G D P	-5.1	-8.7	-10.5	-13.7	-14.9
상 품 수 지	-4,152	-9,618	-14,836	-24,340	-33,296
수 출	23,485	27,730	32,336	40,349	53,404
수 입	27,637	37,348	47,172	64,689	86,700
외 환 보 유 액	14,616	19,872	28,066	37,194	50,987
총 외 채 잔 액	29,581	39,077	55,114	72,046	93,201
총 외 채 잔 액 / G D P	39.1	39.5	45.2	42.8	46.0
D . S . R .	17.2	20.1	20.9	21.6	20.1

자료: IMF, EIU, World Bank

□ 내수 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지속

- 경제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을 압도하는 수입규모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상품수지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확대 재정 정책 및 실질임금 상승으로 인해 수입 증가율이 급증(전년대비 37% 상승)하여 상품수지 적자폭도 확대 되었고 동 추세는 200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해외에서 근무하는 루마니아 노동자들의 임금 송금으로 대부분 구성되는 경상이전수취 규모(2007년 기준 상품수출액 24% 수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상이전수취 흑자가 증가한 반면,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송금 증가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폭도 증가하고 있음.
- 상품외수지의 소폭 흑자 시현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내 산업구조 및 생산·공급 능력 한계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 GDP대비 -1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 증가 지속

-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 시현에도 불구하고 2005~07년 중앙은행은 국내시장에서의 외화매입을 통하여 외환보유액을 늘려왔음. 또한, 시중은행의 해외 외화차입이 증가하면서 외화지급준비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보유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증가한 점이 최근 외환보유액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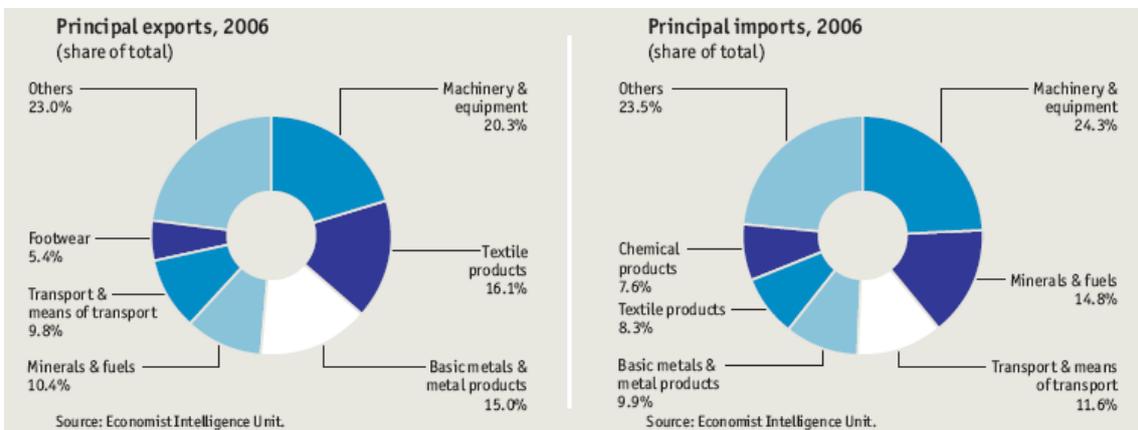
□ 민간부문 외화차입 증가

- 2005년 자본거래 완전 자유화 이후 민간부문의 외화차입이 급증하여 2006년 이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130%를 초과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은 이를 가계여신 확대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단기 상환보다는 차환(roll-over) 형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차입조건이 악화될 경우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가계여신 증가율(모기지 제외): 94%(2006) → 82%(2007)

- 민간부문의 단기 외화차입 급증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도 증가하여 2005년 38% 수준에서 2007년 64%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주요 수출입품목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소수 연정의 불안한 정권 유지

- 2004년 11월 총선 이후 구성된 4개 정당의 연립정권은 EU 가입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서로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갈등 표출을 자제하였으나, 2006년 11월 보수당(CP)이 연정을 탈퇴하였고, EU가입 직후인 2007년 4월 민주당(DP,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구)도 연정과 결별하면서 국민자유당(NLP,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 추구)와 헝가리민주연합(HDUR)이 남아 소수 연정을 유지하고 있음.
- 이후 대통령-총리,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어 2007년 5월에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실시되었으나, 투표결과 바세스쿠 대통령(NLP)에 대한 74% 지지율(투표율 44%) 기록으로 부결됨.

□ 2008년 6월 지방선거, 2대 야당의 세력 균형 유지

- 2008년 6월 지방선거 결과, 2대 야당인 사회민주당(SDP)과 민주자유당(DLP, 2008년 1월 DP가 소수 정당을 규합하여 창당)이 모두 28%의 득표율을 얻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당을 견제할 만한 세력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19%의 득표율을 기록한 NLP의 입지가 11월(또는 2009년 3월)로 예정된 총선의 주요 관심사가 됨.
- 선거결과 발표 이후, NLP는 SDP와의 즉각적인 연정 구성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SDP는 그간 두 정당간 주요 대립 사안이었던 소득세 및 법인세율 단일화 반대 입장의 철회 가능성을 밝혀 정당간 협력체제 구축 가능성을 시사함.

□ EU 및 NATO 회원국으로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 2004년 5월 NATO 가입 및 2007년 1월 EU 가입으로 주요 외교정책 기조는 동 체제 안에서 조율되고 있음.
- 인접국인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와는 전통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몇 안 되는 코소보 독립선언('08.2) 미승인 국가임.

□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긴장관계

- 우크라이나와는 흑해지역 해양경계 확장문제가 잠재하고 있고, 러시아와는 NATO 가입이후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2005년 미국의 루마니아내 군사기지 건설 허용 및 現 바세스쿠 대통령의 러시아 에너지 안보정책 비판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나, 분쟁상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음.
- 한편, 루마니아는 몰도바에 대한 잦은 내정간섭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나, 양국간 관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님.
 - * 몰도바는 1940년 루마니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로 국민의 6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사회불안 요인 미미

- 인구의 약 9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민족 동거에 의한 갈등요인이 없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빈곤계층이 감소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주요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2007년 11월 S&P는 루마니아 정부의 거시정책 운영이 대외수지 불균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전망(Negative Outlook)을 제시하였음.

- * OECD : 5등급('03.1) → 4등급('04.1) → 3등급('07.1)
- * Moody's: Ba3('03.12) → Ba1('05.3) → Baa3('06.10)
- * S&P : BB('03.9) → BB+('04.9) → BBB-('05.9)
- * Fitch : BB('03.12) → BBB-('04.11) → BBB('06.8)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상업은행 지급보증부 전액인수 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외채상환실적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및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체제전환 이전 리스케줄링과 채무감면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후 채무구조 개선과 외환보유액 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음.
- 2007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앞 단기외채 연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 단기: 총지원잔액 1.9억달러(연체잔액 2.1%, 4백만달러)
 - * 중장기: 총지원잔액 35.9억달러(연체잔액 1.8%, 65백만달러)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 증가, 수출초과 기조 유지

- 대 루마니아 수출: 3.9억달러('05) → 6.1억달러('06) → 8.5억달러('07)
- 대 루마니아 수입: 0.9억달러('05) → 0.5억달러('06) → 0.8억달러('07)

□ 해외직접투자 현황(2007년말)

- 총 19개 신규 현지법인 설립 및 2.7억달러 총투자 실적 기록

V. 종합의견

- 경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신용증가에 따른 내수과열 및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이 주요 동인으로 분석되며, 경상수지 적자 누적이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잠재함. 또한,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 통화당국의 긴축 금융정책에도 불구하고 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인 점 등이 우려됨.
- 2008년 11월 예정된 총선의 준비전 성격을 띤 6월 지방선거 결과, 양대 야당이 팽팽한 세력 균형을 보여주어 향후 집권 여당의 파트너 선택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변동성이 심한 정치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국제신인도는 그간 지속적인 상향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S&P가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였음.

전문연구원 구윤정(☎02-3779-6665)

E-mail : kooyj@koreaexim.go.kr